

### 3장

#### 디아스포라의 삶. 2년여의 프로젝트와 카자흐스탄에서의 한 달.

2011년, 레지던시에서 만나 친분이 있었던 카자흐스탄 고려인 4세 미술작가 알렉산더 우가이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마침 한국에 돌아온 지 10년째 되는 해였고, 그보다 몇 주 전에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컴퓨터 메모장에 적어놓고 있었다. 표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미시적/거시적 시점에 관해 토론하며 통계와 기존의 학술자료를 조사했고, 6개월 후 생각의 토대를 ‘미래’로 재설정했다. 과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자, 그렇지만 미래가 오고 있음을, 무엇이 아직 유효한지를 과거에서 찾아내어 이야기하자.

우가이와는 2012년 여름, 카자흐스탄에서 재회했다. 한 달 동안 고려인 초기 정착지인 우슈또베에서 열흘, 알마티에서 이십여 일을 보내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고려인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대략 60여 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모더니티와 기억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했다.

2013년 서울에서 첫 전시를 열었다. 작은 자료집도 만들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남은 이야기는 아직 많다.



우슈또베 기차역

## 미래는 온다

0. 시작 2011. 11.

우리는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에 머물러 생각하기보다, 미래와 연결짓고자 했다.

### 1. 미래?

그러나 미래는 막막했다.

‘오늘에 최선을 다하라’고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Just do it, Now is the time’ 같은 광고 문구가 난무한 세상에서 자라, 몇 년 동안 심신단련법을 가르치신 한 스승님의 ‘내일은 없으니 오늘만을 살라’는 말씀까지, 오늘을 강조하는 현재 세상에서 미래는 그저 추상적이고 누군가의 말처럼 ‘가짜’인지도 모르며, 내일의 계획도 날씨도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미심쩍은 개념이었다.

### 2. 알마티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번잡한 도시이자 옛 수도인 알마티.

알마티 시내 언덕 위 부촌에서 해가 넘어가는 지평선이 보였다.

알마티의 하늘은 여름 내내 아름답게 노을쳤는데, 로스앤젤레스의 노을과도 어딘가 닮아있었다. 도시에 가득한 매연 때문인가.

{2012. 7. 9.

인천공항 --> 알마티공항 도착.

사샤(알렉산더 우가이)가 미리 찾아준 한 달 머물 아파트에 도착. 이곳 건물은 5층까지만 엘리베이터를 만들지 않는다. 아파트는 5층에 위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내. 이 도시의 상징인 사과 조각상과 러시아어 간판을 본다.}

### 3. 오 그곳 우슈또베

고려인 초기 정착지 우슈또베에서 지난날 역사 속 그들이 미래를 위해 만들어놓은 터를 보았다.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서가 아니라 절박함 속에서 크고 나은 미래를 개척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는 걸까.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본관(本貫)을 기억한다. 뿐리는 여기서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의 삶이 역사가 될 줄 몰랐다고 한 살 때 아주한 한 할머니가 말한다. 그들이 역사이고 영웅이라 생각했다.

그들의 미래였던 후손들은 증조모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남아있는 평야와 흔적. 시린 풍경이자 꿈의 한 단면이 현실이 된 것처럼 아련하다.

그리고 또 무엇? 을 위해 다시 미래를 꿈꾸는가. 그들의 손자의 손자는 이제 어디에 서 무엇을 꿈꾸는가. 어디로 향한 시선인가. 잘 모르겠다. 그들은 더는 조국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한국에서 혹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새삶을 꿈꿀 뿐이다.

{우슈또베에서의 시간: 가이드를 맡은 우슈또베 출신 고려인 3세 시인 스따니슬라브 리, 운전사로 동행한 빅또르 아저씨가 알마티에서 우슈또베로 향한 여정 중 처음 3일의 시간을 함께 했다.

첫날:

큰 빌딩 숲에서 느끼는 공포처럼 이 드넓은 평야는 고통스러울 정도의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끝없는 평야를 보며 느끼는 막막함은 비좁은 공간에 갇힌 갑갑함 만큼이나 숨이 막힌다.

그리고 그들 고려인은 이곳에서 살아남아 자손들을 위해 물길 수로를 만들고 씨앗을 뿠렸다. 그들에게 미래는 허황한 것이 아니라 절실한 현실이었다. 아들딸과 손자 손녀를 위한.

길 위엔 우리가 탄 차만 있다. 차를 타고 4시간여를 달리는 동안 스따니슬라브 시인이 계속해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라고 묻는다.

여기서 태어나 자라 어찌 시인과 화가가 아니 될 수 있겠느냐며.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런데 이겨내기 어려운 이토록 낯선 기운은 어찌하나… 이 방인의 초라함이란.

고려인 초기 마을이 이미 사라진 첫 정착 터에 도착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 여정이 시작되는구나를 느낀다. 무덤 두 개를 발견한다. 언덕을 본다. 앞자리 스따니슬라브 시인이 어린 시절 눈 쌓인 언덕에서 썰매 타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차에서 내려 언덕 위 무덤 쪽으로 향했다. 무릎 끊고 앉아 철로 만든 묘패에 한국어로 파낸 누군가의 생사기록을 읽다 뒤돌아서 멀리 평야를 바라본다.

다시 뒤를 돌아 사샤와 스따니슬라브에게 무덤 앞에서 절을 하자고 제안한다. 이 의식은 순간 매우 중요했다. 비로소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느꼈다.

#### 셋째 날:

이곳에서 우리는 매일 밤 길을 잃는다.

농담처럼, 코미디처럼. 우슈또베 출신인 스따니슬라브 시인과 빅또르 아저씨 덕에 평화로운 이 여정에서 우습게도 밤낮없이 길을 헤맨다.

우리의 프로젝트와 닮았다고 느낀다. 우리의 여정이 예정된 것처럼.

길을 찾아서, 잃어서, 잠시 휴식.

어둡고 시골이고 여느 시골처럼 한적하다. 오늘 밤 숙소에서 주당인 스따니슬라브 시인과 함께하는 술자리 안줏거리는 러시아 시골 출신의 시인들이 되려나.

#### 둘째 날:

일주일이 지난 듯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건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몇 시간을 바라본 평야 때문일까 멀리 보이던 지평선 때문일까.

스따니슬라브 시인, 사샤와 숙소에서 대화를 나누다 밤늦게 별이 뜬 평야에 나가보기로 한다. 꽤 늦은 밤이었는데 휴식을 취하던 빅또르 아저씨가 흔쾌히 차를 몰았다. 희한하게 큰 달과 그 빛에 별은 볼 수 없었지만, 공기가 다르게 흐르고 있었다.

살다 보면 가끔 달빛 아래 춤추는 듯한 주술 걸린 밤들이 있다. 차에서 내려 잠시 함께 걷다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돌멩이 몇 개를 주워들었고 스따니슬라브 시인은 어릴 적 추억 속에 빠져들었다. 빅또르 아저씨는 여느 날처럼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았다.

사샤도 어딘가로 사라졌는데 스따니슬라브 시인이 다가와 언덕 쪽으로 향했다고 알려준다. 지금의 어떤 상태라도 그저 내버려두고 싶은 그런 밤이다.

#### 7. 28. 토요일

카페 레인보우에서 열린 고려인 2세 할머니 할아버지의 파티에 초대받았다. 고려말과 러시아어를 섞어 사용하는 이 분들은 내 한국어가 영 석연찮은 듯 하다. 한평생 농사짓고 자식을 기른 그들의 노래와 춤이 흥겨웁게 마음에 와닿아 할 수 있다면 그 흥을 조금 담아오고 싶었다.

“돈많이 벌어서 다음엔 우리 조국에 한번 데려가오.”

그들이 만족할 조국인지는 모르겠으나 공간이동처럼 잠시 동해바다로 모셔와 이 춤이 모래 위에 한바탕 펼쳐지는 모습을 그려본다.  
보드카 한 잔에 마음을 담아 할머니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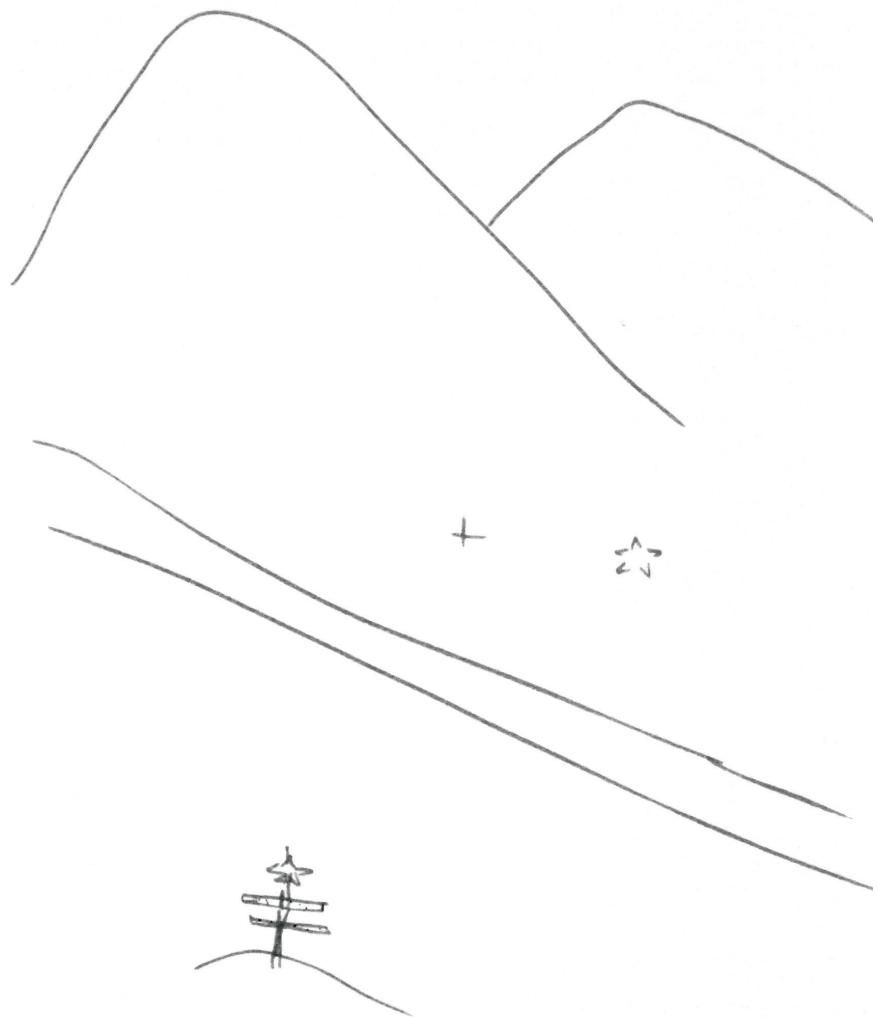
#### 7. 29. 일요일

기차역 재방문.  
역사와 영웅, 모던 히어로는 누구인가? 오늘의 대화 주제다.

변화, 개혁, 요절, 사회체제에 대한 반항: 러시아권 대중문화 속 불멸의 아이콘 빅토르 최의 우상화와 체 게바라의 영웅주의가 어느 부분 흡사하다. 사회의 불안정함, 부조리 속에서 젊은이들은 좌절된 꿈을 안고 다른 현실과 미래를 염원한다. 그들에겐 대변하는 목소리가 절실하다. 혜택받은 계급이 아닌 그들과 비슷한 영웅이 부서진 희망을 노래하고 개혁을 외친다. 행동이, 행보가, 노래가 곧 혁명이고 문화였다. 불멸처럼 느껴지는 그의 영혼이 문화적 기억이다.  
변화를 외치던 젊은 그의 영혼이 아직 건재하다. 체제는 무너졌다. 그러나 변한 것은 무엇인가? 젊은 그들은 또 누구를 기다리나?

#### 7. 30. 월요일

지역의 파워맨이자 시장인 블라디미르 씨의 안내로 고려인 묘지를 재방문.  
지역의 유명인사 스따니슬라브 시인의 소개와 이 씨 성의 본이 같다는 이유로 우슈또베에서 이분의 도움을 받았다.  
평야 한가운데 있는 고려인 마을묘지는 뭔가 놓을 수 없는 감상 때문에 떠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찾았다. 뛰약볕 아래 꽈 오랜 시간 머물렀다.



무제, 2012, 종이에 펜, 14.8 x 21 cm



우수또띠 아침노을 가무단

7. 31. 화요일

강가 촬영.

이곳에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새삼 현대란 참 다양한 시간대를 말하는 듯하다.

8. 1. 수요일

“잘 가오.”

할머니들의 인사가 귓가에 맴도는 짧은 우슈또베 여정이 끝났다.

몇 시간에 걸친 강과 땅 촬영을 급히 마치고 이번엔 알마티까지 버스로 이동.

창밖으로 5시간여의 평야가 질리지 않게 시야를 꽉 채우며 리듬의 굴곡을 뇌리에 남긴다.}

#### 4. 카자흐스탄

한국은 현재 카자흐스탄보다는 외관상 미래형 도시로 보인다.

그러나 소수민족과 인종이 섞인 이곳의 조화는 때로 훨씬 더 인간적인 선진문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리가 고려인 디아스포라에서 이 프로젝트를 출발한 것 또한 시작점의 어딘가에 핏줄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였을지 모른다. 미래의 불분명함을 그들의 역사에 기대어 답을 구해보려는, 비전과 감수성을 의존하는 것이다.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그들과 우리의 미래를.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올지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르기에 더욱 여러 곳으로 머리를 두고 이들과 저들과 우리를 교차해보는 것이다.

유토피아적인 꿈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미세한 사견을 잠시 접어보자.

아직도 남길 것과 남을 자들을 위해 어딘가에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의 유효함과 그 가능성을 읽어내는 지점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그보다 좀 더 앞서 민족이 아닌 무리로 조화로울 수 있을 가까운 미래의 가능 조건들과 삶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 이야기해보자.

{2012. 8. 2.

다시 알마티.

사사와 문 닫힌 한국도서관 방문.

여기도 곳곳에 관료적인 태도가 보인다.

8. 3.

스파니슬라브 시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며칠 동안 가이드를 맡은 부산에서 온 여행자 그룹 ‘시인과 함께하는 기행’ 사람들을 위한 1세대 고려인 인사들의 강연이 있으니 와서 만나보라는 배려였다.

#### 오늘의 하이라이트: 역사적인 세 할아버지와의 만남

이미 팔순을 넘은 1세대의 그들은 요즘 보기 드문 르네상스 맨이었다.

한국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활동하다 소련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김일성 우상화를 반대한 이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망명을 요청해 중앙아시아에 자리 잡았다. 그들은 한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카자흐어가 유창하고 영어까지 가능한 엘리트이자 사상가였다. 역사를 몸에 새기고 산다면 이런 느낌일까. 한 개인에게 거미줄처럼 얹혀있는 역사의 기록. 작곡가 정추선생님과 다가올 미래에 대해, 레닌과 스탈린, 북한에 대해 잠시 담소를 나누었다. 나라 밖에서 열망을 품은 그들이 아직 지켜보고 있다, 시대를, 민족을.

오늘로 이곳 알마티의 고려인과 한인 대상 신문사 세 곳의 발행인과 관계자 또한 모두 만났다.

8. 10.

5세대 고려인 청년들과 고려극장에서 촬영}

## 5. 전시를 앞두고

너무 앞서가지 말자.

아직 끝나지 않은 담론들이 있다.

고골의 소설 <외투>에서 떠도는 유령처럼 시대가 쥐여준 여러 조건이 아직 마음 쓰인다. 대부분의 젊은 4, 5세대 그들은 한국을 돈 벌기 좋은 곳, 미국, 일본과 비슷하게 묶어서 서양 나라(Western country)라고 이야기한다.

앞서 사샤가 시도했던 고려인의 직업변천사에 대한 조사는 미완성으로 끝났는데, 대부분의 고려인 청년들이 이 질문을 불편해했다고 들었다.

‘그저 통계적인 자료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다소 당황했다.

그러나 대중 속에서 다수에 스며 사는 젊은 세대에게 소수자로서의 질문이 불편할 수 있다.

태권도의 틀: 사샤가 알마티의 택시 안에서 태권도의 ‘틀’을 언급하며 기억저장술의 한 형태로 책에 싣고 싶다고 말했다. 요즘 한국 태권도는 ‘품새’를 배운다고 사샤에게 말하고 나서 태권도의 ‘틀’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생겨 잠깐 인터넷 카페에 들려 뒤져보니 태권도의 초기 창시자로 알려진 최홍희가 연개소문, 이율곡, 김유신, 이순신, 광개토대왕 등 역사적인 이름을 붙여 만든 동작의 기본형식이 태권도의 초기 틀이었다. 진정한 무림고수를 꿈꾸었을 법한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이 초기의 발상을 역사의 기록 장치로 아카이브에 싣기로 했다. 민족의 무예가 무술로 보편화 할 때 한국 역사의 위인들 이름을 함께 남기고자 한 애국심도 보인다.

{2012. 12.

비석: 소수민족으로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그들의 자취. 흔적.

죽은 시점의 상황과 당시의 체제에 따라 비석의 모양이 달라졌다. 비석을 재현하며 생각해본다. 세월에 따라 그들이 바라는 미래와 기약은 어떻게 바뀌어 갔을까.

미래형 이동식 가족 분골함(을 만들어야겠다): 가족의 뱃가루를 섞어서 만들고 소량의 분골을 각 칸에 (찬합처럼) 차곡차곡 담아 이동 가능한 기억의 묘지를 만든다.

2013. 1.

작업 노트에 그곳이라고 말하지 말자. 거기 어디쯤이면 되겠다.  
지평선이 부드러운 거기.

팔레트: 카자흐스탄의 색은 황토색으로 기억된다. 알마티가 특히 그렇고 우슈또베에는 여기에 초록색이 툭툭 섞여든다. 서울을 흔히들 회색의 도시라고 하지만 서울에 돌아온 첫해에는 오히려 TV 모니터로 보는 아침드라마처럼 신비감 없이 선명한 칼라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했다.

2013. 7. 22.

청각과 시각보다 후각이 훨씬 예민한 기억 회귀 장치임이 분명한데, 미각 또한 꽤 정확하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작년 이맘때 먹던 오이, 토마토, 고기 고명 잔뜩 얹은 카자흐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국시(국수)가 오늘 점심때 먹고 싶다.

그 땅의 기운이 너무 센 듯해서 역시 대륙은 아무지게 드세구나 싶고, 여기서 살긴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그 한 달간 무엇에 적응했는지 모르겠으나 몸이 기억하는 그 곳의 어떤 것들이 정확히 일 년 뒤 되새겨진다. 카자흐스탄 유목민의 감성이 어딘가에 닿았으려나. 요즘처럼 축축한 날씨에 몸 위에 떨어지던 쟁한 빛이 생각난다.}

## 6. 전시…이후

발굴자의 마음에서 시작해 귀족놀음 같은 전시로 끝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작점이라곤 하나, 생각했던 것 중 3분의 1도 펼쳐놓지 못했다.

{2013. 5. 25

전시 마지막 날 방문한 고려인 디아스포라 연구자에게 격려와 동시에 안산, 동대문 등의 한국 내 고려인 노동자들(돌아온 고려인이라고 말하지만 돌아온 게 맞나?)의 네트워크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핀잔을 들었다. 중앙아시아와 고려인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외국의 한인타운에서 한국인을 연구하듯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나의 변명이었다.

생각해보니, 카자흐스탄에 가기 전, 프로젝트 초반에 고려인 노동자 몇 명과 만나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사사의 친구도 한 명 있었는데, 이들 또 한 우리의 설문조사에 답하기를 꺼렸다. 혹시 한국에서의 체류에 문제가 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질문 내용에 한국 생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묻는 항목은 없었지만, 이들의 조심스러운 마음을 이해했다.

한편, 전시 마지막 날 먹은 동대문 골목의 국시는 LA 한인타운의 순두부만큼 먹을 만 했다. 물론 함께했던 우즈벡 고려인 대학생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지만.}

평화 조화 혼혈 – 카자흐스탄에서 첫 감상으로 적어놓았던 단어들이다.

남시(냄새) – 고려말을 알고 한국을 ‘조국’이라고 부르는 세대의 고려인들이 느낌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한 단어다.

경향 <아티클>(issue #34, 2014년 5월호) ‘문화연구자로서의 예술가’ 편에 개재된 서면 인터뷰 중에서 발췌: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관점이나 현실에 대한 평가는 한국의 젊은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이십 대가 일본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배워서 아는 것처럼,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년들에게 이주의 역사 또한 증조할머니와 할머니의 경험을 전해 들은 역사이다. 5세대인 이들에게 강제 이주는 거의 80년 가까이 지난 일이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몸 안에 축적된 기억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슷한 고민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젊은 세대와 이들을 ‘세계화 속의 젊은 세대’로 동일시하기도 어렵다. 소수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덧입혀진 상태로 지속되고 있기에.

...

소련을 평가하는 기성세대의 입장도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지금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나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이 놓여있지만,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과 신념으로 그 시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우선시하는 세대도 있다.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통계 자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의 삶과 관점은 때로 놀라웠고, 소련의 우주 탐사와 미래 계획에 동참했던 기성세대 중에는 뛰어난 사상가들이 많았다.

...

한국에서는 밖에서도 우리를 지켜보는 우리 민족이 있다는 걸 잊고 산다. 이 땅은 아니지만,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가는 이들에게 이 정체성은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지켜온 것이기도 하지만 타자화된 시선에 의해 강하게 각인된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한국 내에서 타국과 우리를 비교해서 바라볼 때, 이들은 타국에서 민족이란 연결고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언어가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간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언어가 바뀐 이후에도 이들은 인터넷 등의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민족이라는 뿌리에 끊임없이 연결을 시도한다.

THE FUTURE IS COMING FROM ALL DIRECTIONS, 전시전경, 175갤러리, 서울, 2013

